

## 1/25(월) 사사기 묵상 43

사사기 15:1-20

삼손(5)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누그러진 삼손은 얼마후에 딘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딘나 여인은 이미 다른 친구의 아내가 되었고 장인은 삼손에게 그대신 그녀의 동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화가 난 삼손은 여우 삼백 마리를 붙잡아서 그 꼬리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밭과 농장을 불사르게 됩니다. 이 일로 삼손과 블레셋 간의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삼손은 그들 천명을 나귀의 턱뼈로 죽이게 됩니다.

### 삼손의 힘

삼손에게는 세 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 첫번째 여자인 딘나의 여인은 삼손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지도 못하고 결혼 잔치에서 일어난 해프닝으로 삼손은 그의 아내를 두고 화가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삼손은 딘나 여인을 데리고 함께 고향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딘나 여인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화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딘나 여인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수수께끼로 인해 그녀와 그녀의 집이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삿 14:15절, “너는 네 남편을 꺾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 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여기서 이상한 점은 딘나 여인이 남편인 삼손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녀가 아버지에 의해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삼손이 블레셋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3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은 여우 삼백 마리를 잡아서 그들의 꼬리를 묶어 불을 붙이고 블레셋인들의 농장 밭을 태우게 했습니다. 이는 삼손이 단지 힘만 센 것이 아니라 그의 발도 얼마나 빠른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블레셋인들은 이제 질세라 삼손의 아내와 그의 장인을 불살라 죽이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삼손은 더이상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 수많은 블레셋인들에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삼손 단 한 사람을 죽이고자 블레셋 사람들이 무리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9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 삼손 vs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 유다 지파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은 놀라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의 사사인 삼손을 도와 블레셋과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손을 결박해 블레셋에 넘겨주었습니다(12-13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 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비겁하고 웅졸한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이 삼손과 같은 괴력을 가진 사사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블레셋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삼손은 동족들에 의해 결박된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졌지만 하나님이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그는 혼자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천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는 세 번 째 사사인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홀로 육백 명이나 죽였던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삿 3:31,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육백 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모아 사사 삼손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했다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몰아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회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도리어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신 것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삼손 시대에 이같은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사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동족이 아니라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의 힘을 아무렇게나 사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를 신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삼손의 행위를 도리어 성가시게 여기고 적군인 블레셋의 편을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11절, “..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블레셋과 타협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모두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체성을 모두 잊어버리게 하고 세상과 섞여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2. 코로나를 위한 기도: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장이 줄어들고 또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위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미디어위원회를 섬기는 장로님과 모든 부서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김봉춘 선교사님과 가정의 건강 그리고 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